

제주×전주 교류전 팔복예술공장서 개최

14일~11월 10일 제주 6명 작가 참여 다양한 작품 전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이 공동 주최하는 제주×전주 교류전이 팔복예술공장에서 10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제주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전주문화재단은 매년 공동주최로 교류 전시를 개최해왔으며 이번이 세 번째 교류 전시다. 이번 전시에는 제주의 고경화, 김미기, 김승민, 김진아, 신미리, 장숙경 작가 등 6인이 참여해 관람객 참여형 설치·영상작품부터 서양화, 한국화 등 총 66점의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제주라는 섬을 기반으로 다시 예술에 몰입해 새로운 막을 열겠다는 의지를 'Jeu Act. 1: 섬 그리고 다시 예술'이라는 전시명에 담았다. 앞서 제주 예술공간 아아에서 진행된 '커넥트: 생성과 전개' 전시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

된 전주의 중견 작가 8인이 참여했다. 각각 제주와 전주의 전시에 참가한 두 지역 작가들의 교류프로그램은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교류전은 제주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역사성 그리고 변화무쌍한 동시대환경을 바라보는 예술가들의 시선과 사유를 조망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주와 제주의 작가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정신적 유대감과 새로운 희망이 함께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수열 이사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에서 제주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6명의 작가들을 통해 전주 시민들이 제주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제주×전주 교류전 포스터

전주대-전북문화관광재단,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2일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주대 본관 4층에서 진행됐으며, 박진배 총장과 이경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문화와 관광으로 사람을 품은 전라북도 실현을 위한 공동 기획 및 추진 △지역의 예술문화관광 산업의 저변 확대에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흥

보 마케팅 및 교육관광 산업의 생태계 육성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의 문화와 관광의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역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전북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두 기관이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산업화에 이바지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전북테크노파크, 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북테크노파크가 전통문화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 따르면 이날 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와 전통문화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의 공동 추진 △지역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사업 교류 및 공동 추진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체험·전시·행사·콘텐츠 제공 및 활용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 및 편익 제공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 인재를 양성



하고 또 이들이 지역의 커다란 자산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자"고 말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한국전통문화전당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전북테크노파크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데 많은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역의 전통문화와 지식기반 산업 인재 발굴·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창작극회, '배소고지 이야기' 연극 공연

창작극회(대표 홍석찬)는 12~13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은 1951년 임실군 강진면 배소마을의 배소고지에서 벌어진 200여 명의 민간인 학살사건을 소재로 다룬 극이다. 연극은 1951년과 2016년 시대를 오가며 순희, 입분, 소녀, 막동 네 여자의 치열했던 삶을 보여준다. 작가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만 했던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을 재조명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 주요 운영진으로 연출에 홍석찬 대표, 극작에 진주 작가, 무브먼트에 김경민 대표(예술집단 고하)가 참여하며, 출연진에는 순희役に 국영숙, 입분役に 류가연, 소녀役に 정세영, 막동役に 김희진 배우가 출연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예술놀이 축제 다채롭게 열린다

전주문화재단, 13~15일 팔복예술공장 일대서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3~15일 3일간 팔복예술공장 일대에서 2023 전주 예술놀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존의 학술행사 방식과 격식을 탈피하고, 예술교육의 주인공인 예술가와 시민들이 주체가 돼 사회자 없는 진행과 어린이 연사들의 축사로 개막행사의 문을 연다. 또,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의 저자 강영택 우석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나서 돌봄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개막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재단이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예술놀이 국제교류사업의 국내·외 예술가 협력 사례를 참여 예술인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포럼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화자가 되는 '모두발언 워크숍'이 진행되는 등 일부가 아닌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14일과 15일은 한국연극협회 전주시지부와 협력하는 단막극 페스티벌이 열리며, 곳곳에서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 예술놀이 프로그램, 어린이 놀이마켓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선보여질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전주시가 예술놀이의



거점 도시로써 제 역할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놀이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예술놀이팀(063-283-922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무장에 무용극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

국립민속극악원, 내달 3~4일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공연 즐길 수 있게 진행

국립민속극악원(원장 김종현)은 오는 11월 3일과 4일 오후 3시, 국립민속극악원 예원당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연을 관람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내는 운동인 무장에 무용극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을 개최한다. 국악원은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위해 매년 다양한 국악 작품을 무장에 공연으로 선보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첫 무대가 바로 무용극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이다. 이 무용극은 '강강술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더해 제작한 어린이 무용극으로 2022년 초연 이후 국립극악원,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에 초청되어 공연을 펼치며 관객의 큰 호응을 받은 작품이다. 특히 이번에는 무장에 무용극으로 수어 통역과 자막해설, 음성해설을 더해준 작품으로 구성, 수어 통역 및 감수, 공연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공연 전에는 무대의 공간, 소품 등의 사전정보를 음성해설로 듣는 터치투어가 공연장 로



비에서 진행되고, 터치투어는 인원제한이 없으며 관람 예약시 함께 접수할 수 있으며, 무장에 공연의 특성상 10월 17일~20일까지 4일간 장애인의 우선 예약을, 일반 예약은 10월 24일~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방법은 전화(063-620-2329)와 카카오톡(국립민속극악원 친구추가 후 상담하기)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공연의 자세한 정보는 국립민속극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보다 나은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꼭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가족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